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인식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

– 대구광역시 중등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chool Library through Library Teacher's Perception

권 은 경(Eun-Kyung Kwon)**

〈목 차〉

I. 머리말	4. 학교장과 교사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수준과 제고방안
II.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일반교사	5. 학생의 도서관 이용 증진방안
III.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인식조사	6. 도서관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 조사결과 및 분석	7. 디지털자료실에 대한 인식
1.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특성	V. 결론과 제언
2. 도서관 운영실태	
3. 담당교사의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한 이해	

초 록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학교도서관활성화에 있어서 일반교사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 논문의 중심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중등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도서관의 실태와 함께 도서관의 기능,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관한 그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현 체제하에서는 도서관담당교사의 업무경감, 도서관 연수교육 강화, 교내 도서관 지원부서 설치, 교육청의 강력한 학교도서관 지원정책과 전담부서 설치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학교도서관 활성화, 학교도서관 운영실태,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Abstract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clarified the importance of teacher's role in activating the school library. In the second part, the major of this paper, the state of the art of school libraries and the perception of teachers managing school libraries without librarian certificate were investigated by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to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was planed to survey the functions, the management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school library. The followings were analyzed in more detail ;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library teacher, the actual condition of the library, the recognition on school library of teachers and principals, the promotion plans for library use, and the solution for management problems.

Key Words: school library, activation of school library, perception on school library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eunkwon@daegu.ac.kr)

• 접수일 : 2003. 2. 11 • 최초심사일 : 2003. 2. 11 • 최종심사일 : 2003. 2. 13

I. 머리말

최근 수년동안 관심이 집중되어 온 학교도서관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드디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활용프로그램 강화, 전담관리 인력배치 및 전문성 제고, 그리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추진사업을 목표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각 지방 자치체의 교육청은 이 계획을 추진하는 주무기관으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사업단을 조직하고, 200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기 위하여 교육청 단위의 사업 실천계획과 2003년도 활성화 대상 도서관을 선정함으로써 일단 사업의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이 종합계획은 발표 당시부터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사안인 사서교사 배치 문제를 비켜감으로써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의 비난과 우려를 면치 못하였다. 교사 총정원제의 제약으로 단기간에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할 수는 없다면 단계적인 해결방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투자를 하고도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도서관이 5년 후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5년 동안 총 3,000억원을 투자하게 될 이 사업에 책임을 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인력이 교육청 내에 없다는 점이다. 2003년도부터 종합계획을 지휘할 각 지자체 교육청 산하의 학교도서관사업단은 이를 전담할 부서나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하고 교육청 내에 학교도서관사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기획예산, 초·중등교육 등의 해당부서 관리자,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사서로 구성되어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운영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속성을 지니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5년 동안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아우르는 도서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총괄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전담부서 및 인력이 없다는 것은 사서교사 없는 학교도서관 활성화계획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우려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담부서와 인력이 없이 추진되는 이 사업이 당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일 것이다. 2002년 4월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약 80%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기울여온 현장교사들은 이 설치율은 단지 수치일 뿐, 교실 한 칸도 차지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대출 반납도 하지 않는 숫자만의 도서관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현 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는 활성화 계획에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숫자만의 통계에 의지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교사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찰하고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실태와 함께 도서관의 기능,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관한 그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비전공자로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일반교과교사가 학교도서관 운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까지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에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학교도서관 실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집단일 것이다. 이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활성화 계획의 1차 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일반교사

1.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있어서 일반교사의 역할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일반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다. 교사 자신이 도서관 이용자이기도 하지만 학생의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고 격려한다는 측면에서 도서관과 주 이용자인 학생을 중개하는 교사의 역할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발전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은 교육부가 밝힌 학교도서관 종합발전방안의 추진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의 추진배경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첫 째,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과 심층적 학습을 위해서는 책 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 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이 필수적이다. 학교단위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고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중심시설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둘 째, 새로운 (제7차)교육과정의 시행과 학생수 감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및 개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수-학습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수행평가, 재량활동·특별활동 등을 위한 각종 학습자료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을 촉진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학교도서관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 째, 평생학습사회 및 주 5일제 수업에 대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청소년의 문화 공간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가하였다.¹⁾

첫 째와 둘 째에서 기술된 탐구중심의 수업방법 개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자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안).” (서울: 교원정계심위원회 대강당, 2002. 7. 26)

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자료의 제공은 일차적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교사들의 역할과 도서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뒤집어 설명하면 자료중심 학습 및 탐구학습의 미흡(40.6%)과 학교도서관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39.1%)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환경요인이었음을 의미한다.²⁾

학교도서관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과 요구가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실증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심자영³⁾은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이용습관은 그들을 직접 지도하는 일반교사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므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는 학생을 담당하는 일반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인식하며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일반교사들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도서관에 대한 요구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구입비, 자료열람실 좌석수, 일일대출을 항목으로 하여 상위, 하위그룹의 학교를 선정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의 일반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일반교사들 보다 학교도서관의 교사들에 대한 지원 측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 측면, 학교도서관 운영 측면에 대한 요구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희⁴⁾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교장과 일반교사의 관심이 도서관 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기대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최상위 9개교, 최하위 10개교를 선정하여 조사한 바, 상위 그룹이 도서관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더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있어서 도서관 중심의 학습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며, 도서관 자료를 더 자주 소개한다고 밝혔다.

위의 두 논문은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교사들에게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김연숙⁵⁾은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사의 교육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교육에만 이용되며, 교사의 교수학습자료나 연구자료에 있어서의 역할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학교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으로는 도서관 장서확충, 시설확충, 수업에 필요한 보조도구 설치, 교육프로그램 개발, 뉴 미디어 도입의 순이며, 전문사서의 채용은 조사된 7개의 항목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최정태⁶⁾는 학교도서관의 발전과 현직교사의 인식에 관한 고찰에서 일선교사들은 학교도서관의 저해요인으로 첫째, 교육부와 학교행정가의 무관심, 둘째, 학교장의 방관과 무

2) 전계논문.

3) 심자영,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도서관에 대한 일반교사의 요구수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4) 박종희,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일반교사들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5) 김연숙, “현장교사의 교육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6) 최정태, “학교도서관의 발전과 현직교사의 인식에 관한 고찰,” 국립대학도서관보, 제3집(1985), pp.17-46.

관심, 그리고 셋째로 일반교사의 의욕과 봉사정신의 부족 등을 들었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교사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지만 전반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서로 상반된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직접적인 이용자이며,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는 중개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도서관을 담당하여 활성화를 추진하는 실천가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행정부서는 교사들에게 교육목표 및 방법의 혁신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과 이를 제도적으로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동시에 확립해야 할 것이다.

2. 학교도서관 담당자로서 일반교사의 역할

문헌정보학에서는 일반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는 협동교수프로그램이 교수-학습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며 교육학습정보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현재 학교도서관의 대부분은 일반교과교사와 그들을 보조하는 학생봉사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5년 간의 활성화 사업기간 내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대다수의 학교에 전문인력을 수급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중·장기적 노력과 함께 도서관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개선하는 이중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후일 사서교사가 배치되었을 때에 그의 활동입지를 넓혀주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사서교사의 중요성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전문사서 등 전담인력부족이 47.7%를 차지해, 시설의 열악함 31.2% 보다 훨씬 심각한 장애요인임이 증명되었다.

실제로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2,725명의 내역은 사서교사 17, 겸임사서교사 92, 교과교사 2,315, 사서 193, 기타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267명 중 사서교사 115, 겸임사서교사 112, 교과교사 1,761, 사서 182, 기타 97명이다. 그러므로 중학교 도서관 담당자의 85%, 고등학교 도서관 담당자의 77.6%가 일반 교과교사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교도서관의 80%이상이 일반교과교사의 손에 좌우되고 있다. 일반교사가 도서관을 담당할 경우에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전문지식의 부족이며, 다른 하나는 교과수업과 함께 도서관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야기되는 이중의 업무부담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담당교사가 도서관을 발전시키려하는 의지와 열성이 있다면 동일 교과목, 동일 학년의 교사들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협력을 끌어

내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사서교사가 도서관을 운영하더라도 일반교사의 협력 없이는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오랫동안 학교도서관을 담당해온 국어교사 한 사람은 이런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서교사만 있으면 도서관이 저절로 운영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제 막 발령받은 사서교사가 도서구입비의 법적 근거나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 학교 관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의 독서행사 대신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해야한다고 교사 대중을 설득할 수 있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⁷⁾

결론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처해있는 현재의 환경에서 일반교사들이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은 후일 사서교사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방법인 셈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학교도서관의 80%를 운영해온 실무자로서 도서관운영 경험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 담당 일반교사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여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업무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의 협조로 학교내의 도서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사서교사 배치의 주장에 못지 않게 도서관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사서교사가 배치될 경우에도 도서관이 사서교사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활성화 될 수 없고 학교 구성원 전체의 협조에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현재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는 도서관 활성화에 필수적인 교두보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III.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인식조사

1. 조사목적과 내용

본 조사는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하나는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의 정보를 얻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내 외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분야에 제안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에는 학교도서관의 운영실태,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도서관 기능에 대한 이

7) 학교도서관 담당 P교사와의 면담(2002년 11월 23일).

해, 학교장·교사·학생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이용정도,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

2. 조사대상과 방법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한 2002년도 학교도서관통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중등학교 186개 중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164개교(중학교 99개, 고등학교 65개)로 8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서관 담당인력은 <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1> 대구광역시 중등학교도서관 담당인력

학교 \ 구분	사서교사	겸임교사	교과교사	사서	기타	합계
중학교	0	2	91	10	5	108
고등학교	0	7	59	4	6	76
합계(%)	0(0.0)	9(4.9)	150(81.5)	14(7.6)	11(6.0)	184(100.0)

본 조사에서는 중·고등학교 가운데 일반교과교사가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로, 예산과 장서량의 항목에서 평균 이상인 60개 학교(중학교 35개, 고등학교 25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도서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응답에서 일반성과 타당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설문조사에 협조적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한 9개의 항목⁸⁾ 중, 예산과 장서량(단행본)이 도서관의 규모나 운영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 학교도서관의 2002년도 평균예산은 중학교 약 578만원, 고등학교 약 603만원이며, 평균장서량(단행본)은 중학교 5,000권, 고등학교 7,800권 정도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60개의 학교는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164개교 중 상위 37%에 속하는 셈이다.

배포한 60개의 설문지 중 35개(중학교 19개, 고등학교 16개)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58.3%이다. 이 중 세 자료는 응답이 불충분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유효자료의 학교 유형은 <표 2>와 같다.

설문은 39개 문항으로 응답자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6개 문항, 도서관 관련문항이 33개이다. 문항은 조사자가 작성하여 현재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교사(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2002년 12월 2일에 발송되어 12월 31일까지

8) 직원, 예산, 시설(면적, 열람석수), 자료(단행본 외 5종), 연간 증가 자료수, 장비(서버, PC, 인터넷 가능 PC), 이용현황(1일 평균 대출자수, 대출책수, 이용자수), 도서관을 이용한 수업시간, 1일 도서관 운영시간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수된 것을 분석하였다.

〈표 2〉 응답학교의 유형

학교유형 \ 학교등급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유형			
공립	14	9	23
사립	3	6	9
전체	17	15	32

3. 조사의 한계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의 중·고등학교도서관 중 상위그룹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설문의 회송율도 58.3%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조사기간이 시기적으로 학기말에 가까워서 바쁜 탓도 있었지만 비전공자로서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설문에 응해줄 것을 촉구하는 전화에 대해 '전공자도 아니고 도서관에 관심도 없으므로 설문에 응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사례가 수 차례 있었다. 매우 유감스럽기는 하나 이것이 바로 학교도서관의 현실을 반영하는 단적인 예로서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특성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전공교과목, 도서관 담당경력, 도서관을 맡게된 동기, 도서관 관련 연수경험, 보람감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32명의 교사중 26명(81.3%)이 국어교사이며, 한문 2명, 국사, 사회, 영어, 창의적 재량활동이 각각 1명이었다.

학교도서관 담당경력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 미만이 22명(68.8%)를 차지하고 있으나 5년 이상의 경우도 7명(21.9%)이며, 가장 오랜 경력으로는 25년 째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을 담당하게 된 동기는 본인이 희망한 경우 9명(28.1%)보다는 학교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21명(65.6%)으로 훨씬 많았다.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경험은 17명(53.1%)가 받

은 적이 있으며 도서관 담당 동기와 연수경험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내용은 전 산화 교육(7명) 및 교육청의 학교도서실 담당자 일반 연수(6명)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는 독서지도 교사 연수, 도서실 운영사례발표 참석 등이 있었다.

도서관을 담당하는데 대한 보람은 약간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정도가 각각 22명, 6명으로 전체 87.6%에 달하고 있으며, 크게 느끼는 경우가 1명, 그리고 3명(9.4%)은 언제라도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학교도서관 발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2명 중 26명(81.3%)은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6명(18.8%)은 모른다고 답하였다.

2. 도서관 운영실태

도서관의 교무분장상의 소속, 1일 평균 운영시간, 평균예산, 운영수준, 이용정도, 학생봉사반 운영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도서관의 소속부서는 22개의 도서관(68.8%)은 교무부, 7개(21.9%)는 연구부, 그리고 어학부, 교재부, 학생부에 속한 도서관이 하나씩 있었다. 그런데 <표 4>에서 보면 중·고등학교에 따라서 소속부서의 분포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중학교는 교무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고등학교는 교무부와 연구부에 나뉘어 있다.

〈표 4〉 학교도서관의 소속부서

학교등급 \ 도서관소속	연구부(%)	교무부(%)	교재부(%)	기타(%)	전체(%)
중학교	2(11.8)	14(82.4)	0(0.0)	1(5.9)	17(100)
고등학교	5(33.3)	8(53.3)	1(6.7)	1(6.7)	15(100)
전체	7(21.9)	22(68.8)	1(3.1)	2(6.3)	32(100)

도서관 운영시간은 1시간 미만이 4개교(12.5%),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이 20개교(62.5%),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도서관이 3개교(9.4%)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도서관(84.4%)이 1일 평균 3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교는 5개 학교(15.6%)가 있다.

최근 2-3년 간의 평균예산은 중간값으로는 중학교 575만원, 고등학교 700만원이며 평균 값으로는 각각 558만원, 609만원정도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한 대구광역시 전체 중학교도서관의 평균예산이 578만원, 고등학교의 평균예산이 604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상

〈표 3〉 학교도서관 담당경력

도서관 담당경력	빈도(%)
1년 미만	9 (28.1)
1~3년	13 (40.6)
3~5년	3 (9.4)
5년 이상	7 (21.9)
합계	32(100.0)

위 37%에 속하는 학교도서관의 평균예산으로는 매우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개별적으로 심층 조사하는 경우와는 다른 일반 통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도서관의 운영수준을 대출, 전산화, 도서관 이용지도, 도서관 활용수업의 실시여부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운영수준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수준을 교차분석하였다<표 5>.

〈표 5〉 도서관 운영수준과 담당교사의 인식수준

운영수준 인식수준	대출		전산화		이용지도		활용수업		전체(%)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아주 잘이용	3	0	3	0	3	0	1	2	3(9.4)
그런대로 잘이용	19	2	16	5	7	14	5	16	21(65.6)
잘이용 안됨	5	2	4	3	1	6	1	6	7(21.9)
거의 이용없음	0	1	0	1	0	1	0	1	1(3.1)
전체(%)	27 (84.4)	5 (15.6)	23 (71.9)	9 (28.1)	11 (34.4)	21 (65.6)	7 (21.9)	25 (78.1)	32(100.0)

<표 5>를 보면 32개의 도서관 중 5개 도서관(15.6%)이 대출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조사대상학교가 전체 학교도서관 중에서 상위권의 도서관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상당히 놀라운 숫자이다. 23개 도서관(71.9%)은 전산화하였으며, 11개 도서관(34.4%)는 이용지도를, 7개 도서관(21.9%)은 도서관 활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운영수준에서 도서관 담당교사의 대부분은 도서관이 아주 잘 이용되고 있거나 (9.4%) 그런대로 잘 이용되고 있다(65.6%)고 생각하고 있고, 비교적 소수만이 잘 이용되고 있지 않거나(21.9%) 거의 이용이 없다(3.1%)고 응답하였다.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세 학교는 대출, 전산화, 이용지도는 실시하고 있지만 활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하나 뿐이다. 그런대로 잘 이용된다고 응답한 21개 학교 중 2개 학교는 대출조차 하고 있지 않다. 담당교사들의 도서관 기능에 대한 인식과 기대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실행수준이 높은 학교도서관의 역할모델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교사가 도서관을 담당하는 경우 인력의 부족으로 학생들로 조직된 도서관봉사반에 대한 의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사반 실태는 32개 학교 중 30개교(93.8%)가 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의존 정도는 15개 학교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15개 학교는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봉사반 학생들은<표 6>과 같이 자료의 수집 및 조직에서부터 이용홍보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업무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표 6〉 학생봉사반 업무

종류	도서 정리	대출 반납	환경 미화	자료 조직	홍보지 제작	자료 선정	도서관 행사	홈페이지 관리	교내 방송홍보
실시 학교(%)	28 (93.3)	25 (83.3)	17 (56.7)	10 (33.3)	8 (26.7)	8 (26.7)	7 (23.7)	4 (13.3)	2 (6.7)

특히 도서대출·반납과 정리는 학생들의 활동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도서관 이용 시간이 점심시간과 방과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도움이 없이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서교사가 배치된 후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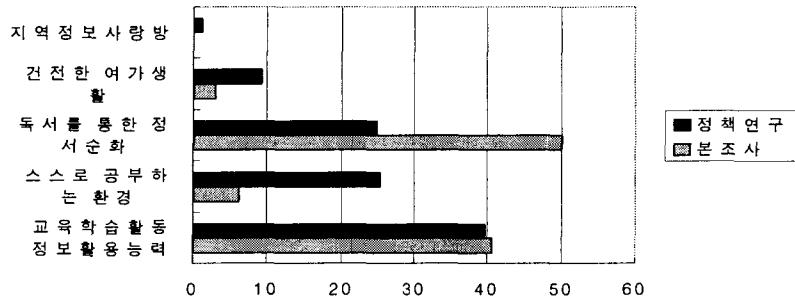
학생봉사반의 운영은 담당교사의 관심과 적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담당교사들은 학생들의 도서관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실토했다. 그 결과는 봉사희망자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봉사반 운영의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운영비의 부족, 인센티브 부족, 희망자의 부족-로 조사하였는데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실제로 서로 연결된 것으로 운영비의 부족은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그리고 희망자의 부족으로 귀결된다. 학교도서관의 예산은 근본적으로 부족한데 예산의 대부분은 자료구입비로 사용되고 별도의 도서관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조사에서는 도서관 운영비는 도서관예산 중 연평균 60만원 정도, 1개월에 5만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봉사반의 활동은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경우에라도 단순한 인력부족의 해결책이 아니라 학생들과 도서관의 연결고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들에 대해 개인적 동기부여, 선후배간의 활동, 학교간 교류를 통한 연대감 확산 등의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운영비의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3. 도서관 담당교사의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한 이해

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가 도서관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관건이 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2001년도 말에 발표된 정책연구과제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방향』⁹⁾에서 조사한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한 결과와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와 동일한 다섯 가지 기능- 다양한 교육·학습활동 정보활용능력 신장,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 독서를 통한 정서순화 및 사고력 신장, 전전한 여가생활, 지역사회 정보문화 사랑방-을 제시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9) 한상완,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방향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검토작업단 구성·운영-.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1)

<그림 1>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인식¹⁰⁾

본 설문조사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1순위가 「독서를 통한 정서순화 및 사고력 신장」 16개교(50%), 2순위로 「다양한 교육학습활동 및 정보활용능력 신장」이 13개교(40.6%)였다. 그 외의 기능에 대해서는 응답이 아주 미미하였다. 현재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의 80% 이상이 국어교사임을 상기하면 「독서를 통한 정서순화 및 사고력 신장」이 도서관의 기능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에 비해 2001년의 정책과제에서는 학교도서관의 다섯 가지 기능 중 1순위로 「다양한 교육학습활동 및 정보활용능력 신장」 39.6%, 2순위가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 25.3%, 그 다음은 「독서를 통한 정서순화 및 사고력 신장」 24.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¹¹⁾ 도서관의 기능을 독서보다는 교육학습 및 정보활용센터로,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장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정책과제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 “학교도서관의 기능이 과거의 독서 및 공부방의 기능에서 점차 변화하여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정보활용 능력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을 국어교사가 담당하고 있고 그들의 도서관 기능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지 않는 한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좀처럼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을 무시하고 기대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하여야 하겠다.

<표 7>은 국어교사 이외의 표본이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으나, 교사의 담당과목과 도서관 기능에 대한 이해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10) <그림 1>은 서로 다른 조사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수치는 응답자의 수가 아니고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11) 본 조사와 정책과제의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한 질문은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조사대상, 목적, 방법에 차이가 있다. 정책과제에서는 도서관 기능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한 우선 순위와 가중치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응답은 도서관 기능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담당교사의 인식을 그대로 조사한 것 이므로 도서관에 대한 실제의 이해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표 7〉 교사의 담당과목과 도서관기능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학교도서관 의 기능 담당과목	다양한 교육 학습활동, 정보활 용능력신장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	독서를 통한 정서순화 및 사고력 신장	건전한 여가 생활	전체
국어(%)	9 (34.6)	2 (7.7)	14 (53.8)	1 (3.8)	26 (100)
한문	2 (100)	0 (0.0)	0 (0.0)	0 (0.0)	2 (100)
기타	2 (50)	0 (0.0)	2 (50.0)	0 (0.0)	4 (100)
전체	13 (40.6)	2 (6.3)	16 (50.0)	1 (3.1)	32 (100)

학교도서관 기능과 함께 사서교사의 역할에 대한 도서관담당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서교사와 같은 전담인력이 도서관에서 해야할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도록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사서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종류	도서관 이용지도	도서관 활용수업지도	독서지도	교과별 참고자료 개발 · 목록제공	협동교수 프로그램개발	학습매체 제작	교육과정 개발실천
응답 (%)	29 (90.6)	28 (87.5)	24 (75.0)	18 (56.3)	13 (40.6)	3 (9.4)	3 (9.4)

도서관 담당교사는 사서교사의 역할로 도서관 이용지도, 도서관 활용수업 지원, 독서지도, 교과별 참고자료개발 및 목록제공과 같은 도서관 중심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협동교수 프로그램 개발, 학습매체 제작, 교육과정 개발·실천·평가와 같은 교사 지향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서관 이용지도와 도서관 활용수업지원을 사서교사의 역할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담당교사가 현재 도서관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교차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이용지도의 경우 인식한 교사 29명 중 실시하는 교사가 8명(28%), 활용수업은 인식한 교사 28명 중 실시하는 교사는 7명(25%)이었다. 이 사실은 도서관 담당교사가 사서교사가 해야한다고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서지도에 관해서도 75%는 사서교사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지만 25%는 그렇지 않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 점 역시 도서관 담당교사의 대부분이 국어교사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와 도서관에서의 독서지도·독서교육의 정체성이 국어교과에서 지향하는 바와는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1989년에 발표된 김병주¹²⁾의 논문에서도 사서교사¹³⁾의 역할 중에서 교육적 역할에 대

12) 김병주, “사서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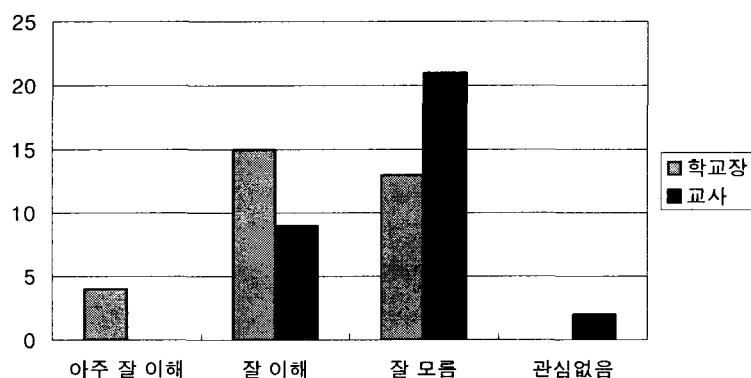
13) 김병주는 사서교사를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실)을 책임지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교육수준이나 도서관법과 교육법상의 자격취득 및 구분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보직 또는 전임으로 학교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 포괄 정의하였다. 따라서 사서교사에서 임시로 도서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 인식이 도서관 관리의 역할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적 기능 중 교육 과정 개발에 참여는 사서교사가 5점 척도에서 3.44로 인식하는데 비해 장학사 2.10, 교장 2.03, 교사 2.17로 어떤 직책도 사서의 기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15년 전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정도로 학교 내에서 사서교사의 교사로서의 위상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연수를 실시할 때, 다양한 교육자료의 활용법, 정보검색 기술과 같은 도서관 및 자료 활용교육과 함께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여 교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4. 학교장과 교사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정도와 제고방안

학교장과 일반교사의 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은 도서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장과 교사의 도서관 이해정도를 <그림 2>에서 비교하였다.



<그림 2> 학교장과 교사의 도서관 이해정도

학교장의 경우 아주 잘 이해하거나 잘 이해하는 비율이 59.4%(19명)로 잘 모르는 비율 40.6%(13명)보다 많은데 비해서, 교사의 경우에는 잘 모르거나(65.6%, 21명) 전혀 관심이 없는 쪽(6.3%, 2명)이 잘 이해하는 쪽(28.1%, 9명)보다 훨씬 많다.

도서관에 대한 학교장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표 9>으로는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보다 교육청의 도서관 행정시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립과 사립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 9〉 학교장의 도서관관심 제고방안

제고방안 학교유형	학교도서관 관련연수(%)	교육청 행정시책	우수도서관 견학	기타	전체
공립	7(30.4)	9(39.1)	4(17.4)	3(13.0)	23(100)
사립	1(11.1)	7(77.8)	1(11.1)	0(0.0)	9(100)
전체	8(25.0)	16(50.0)	5(15.6)	3(9.4)	32(100)

교사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표 10>으로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 도서관활용수업 연구교사제, 디지털도서관 설치순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가 교사들의 도서관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도서관 연수나 도서관활용수업 연구교사제와 같이 교사 개개인의 이해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보다 운영위원회처럼 교사 다수의 연대에 의한 집단적 제고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것은 교내에 도서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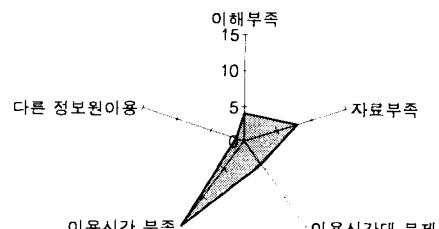
제7차 교육과정 실시 이후 교사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용의 변화에 대한 응답은 전과 동일이 26명(81.3%), 약간 증가가 6명(18.8%)이다. 교사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을 다섯 개의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일반교사들의 경우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 부족(12.5%)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업무과다로 인해 이용시간이 부족(46.9%)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25%) 도서관의 개방시간과 업무시간이 겹치기 때문(12.5%)에 원천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7차 교육과정에서 자료학습, 탐구학습으로 수업방법을 개선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이것이 활성화 종합계획의 추진배경이기도 하지만 교사가 연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사의 도서관 이용은 어렵고 도서관이 학생들만의 교육-학습센터가 되는 것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표 10〉 교사의 도서관 이해 증대방안

항목	빈도(%)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10(31.3)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	9(28.1)
도서관 활용수업 연구교사제 실시	6(18.8)
디지털 자료실 설치	3(9.4)
기타	4(12.5)
합계	3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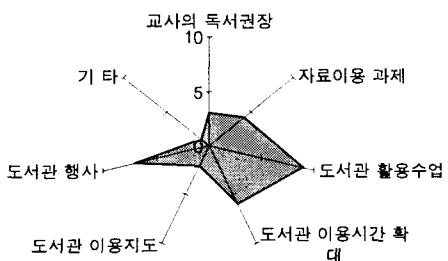
〈그림 3〉 교사의 도서관이용의 문제점

5. 학생의 도서관 이용 증진방안

제7차 교육과정 실시 이후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와 이용에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이 65.6%, 약간 증가 31.3%, 크게 증가는 3.1%로 나타났다. 교사에 비해서 학생의 변화는 보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의 교육개혁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그림 4>. 도서관 활용수업(28.1%), 도서관 행사실시(21.9%), 도서관 이용시간 확대(18.8%)방안이 자료이용 과제(12.5%), 교사의 독서권장(9.4%), 도서관 이용지도(6.3%) 방법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일과 수업시간 중에 학급별로 이용시간을 할애하는 방법이 43.8%로 가장 높고, 점심시간 연장 21.9%, 방과후 시간, 수업전 아침시간은 각각 18.8%, 15.6%였다.



<그림 4> 학생들의 도서관이용 향상 방안

6. 도서관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표 11>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

기능	순위					계	평균 순위
	1	2	3	4	5		
1. 도서관 지원시스템 부재(%)	8 (25.0)	6 (18.8)	11 (34.4)	3 (9.4)	4 (12.5)	32 (100)	2.66
2. 학교장의 무관심	2 (6.3)	5 (15.6)	6 (18.8)	10 (31.3)	9 (28.1)	32 (100)	3.59
3. 일반교사의 무관심	2 (6.3)	3 (9.4)	5 (15.6)	11 (34.4)	11 (34.4)	32 (100)	3.81
4. 문현정보학 지식의 부족	3 (9.4)	13 (40.6)	4 (12.5)	6 (18.8)	6 (18.8)	32 (100)	2.97
5. 업무부담의 과다	17 (53.1)	5 (15.6)	6 (18.8)	2 (6.3)	2 (6.3)	32 (100)	1.97
계	32	32	32	32	32		

현 체제 하에서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다섯 항목 중에서 순위로 정해보았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순위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업무부담의 과다, 학교도서관

지원시스템 부재, 등의 순으로, 2순위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문헌정보학 지식 부족, 지원시스템 부재, 3순위에는 지원시스템 부재, 학교장 무관심, 업무과다 등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평균순위로 보면, 1순위 업무부담의 과다, 2순위 교내외 학교도서관 지원시스템 부재, 3순위 문헌정보학 지식의 부족, 그 다음으로 학교장·교사의 무관심이다.

학교의 책임자인 학교장의 관심과 열성, 동료교사의 관심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서교사가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일반교사가 담당하고 있거나 공통된 사실로 언급되어 왔다. 학교장의 의지와 열성이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견인차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의 도서관 운영에서 담당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다한 업무부담이다.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반교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거나, 도서관을 이용한 자료중심학습으로 교육방법을 개선하려는 일반교사가 당면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그림 3>참조)는 과중한 업무부담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교사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지 않고는 실질적인 도서관 활성화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여겨진다. 이것은 입시중심 교육이 학교도서관활성화에 가장 근본적 저해요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업무과다 역시 또 하나의 근본적 저해요인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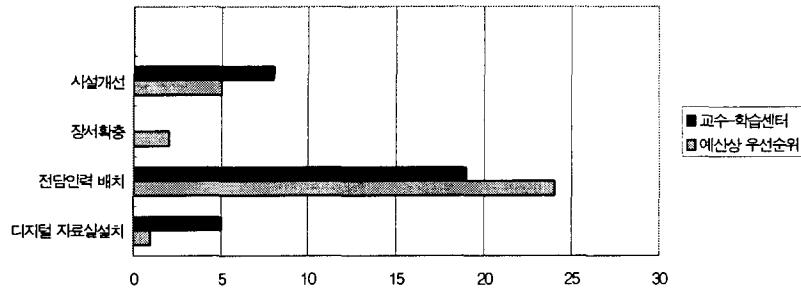
도서관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담임면제(37.5%)나 시수감면(34.4%)으로 업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74.2%를 차지하여 수당지급(18.8%)이나 가산점 부여(2%)보다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업무부담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제2순위의 어려움은 학교도서관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도서관 담당교사와 일반교사들로 구성된 도서관 지원부서를 구축하는 것은 학교내에 도서관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도서관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방안이다.¹⁴⁾ 앞에서 기술한 교사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중대시킬 수 있는 방안<표 10>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제 1순위로 꼽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개선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도서관이 교수-학습 센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각각 다른 두 문항을 통해 담당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14) ① 유양근, “학교도서관 활성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냐,” *私學*, 101호(2002), p.10-22.

② 대구 학교도서관연구회 교사모임의 회장으로 10년 째 고등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과 P교사는 학교도서관이 교사사이에서 확고한 입지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부서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교육청 간담회 및 개인적 면담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그는 교내에 과학부가 신설되었을 때 상당한 예산이 당연하게 편성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독립부서 설치방법은 원로교사 한 분을 부장교사를 임명하고 각 영역의 교과교사 한 명씩을 선발하여 부서를 구성하는 것이다. 유양근 교수 역시 위의 논문에서 이와 유사한 협동체제를 제안하였다.



〈그림 5〉 개선해야 할 우선순위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종합방안에서 시설개선과 장서확충을 가장 우선적인 실천과제로 삼고 있으나 현장의 시각에서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조사의 대상이 비교적 상위권의 학교도서관이라서 시설과 장서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면 도서관의 수준에 따라 지원 방안을 다르게 책정하고 그 방안에 구체적인 전문인력 수급방안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도서관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이나 단체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학교도서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단체

학교유형	학교장(%)	교육청	교사	학생	학부모	전체
공립	11(47.8)	8(34.8)	2(8.7)	1(4.3)	1(4.3)	23(100.0)
사립	3(33.3)	4(44.4)	1(11.1)	1(11.1)	0(0.0)	9(100.0)
전체	14(43.8)	12(37.5)	3(9.4)	2(6.3)	1(3.1)	32(100.0)

전체적으로 볼 때 도서관 활성화에는 학교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사립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영향력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서 학교장의 도서관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교육청의 행정시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된 점을 상기하면, 학교도서관이 진정한 의미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강력한 정책, 학교장의 의지, 사서교사 채용, 그리고 교내 도서관 지원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7. 디지털자료실에 대한 인식

본 조사에 응답한 학교 중에서는 4개 학교에 디지털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디지털

자료실에 대한 도서관담당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자료실 설치여부와 교차분석하였다<표 13>.

〈표 13〉 디지털자료실 설치여부와 담당교사의 인식

설치여부 \ 인식수준	도서관 환경개선에 필요(%)	인터넷 검색가능	도서관 활용수업 강화	전체
설치			4(100.0)	4(100.0)
미설치	13(48.1)	3(11.1)	11(40.7)	27(100.0)
전체	13(41.9)	3(9.7)	15(48.4)	31(100.0)

디지털자료실이 설치된 4개 학교는 모두 도서관활용수업을 강화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비하여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사들은 도서관 환경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도서관활용수업 강화, 인터넷 검색 등의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디지털자료실 설치여부와 교사들의 인식수준과의 관계는 χ^2 검증 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학교 수가 너무 적어서 분석의 여지가 없으나 비용 대 효과면에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약간 만족이 3개교, 약간 실망이 1개교이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여정도는 크게 기여, 약간 기여가 각 2개교였다.

디지털 자료실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자료로는 DVD자료, 인터넷정보, 교양비디오, 어학자료, EBS녹화자료 중에서 네 학교 모두 인터넷정보를 꼽았다. 다른 문항에서 디지털자료실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로 1개 학교(3.1%)가, 도서관이 교수-학습센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5개 학교(15.6%)가 디지털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그림 5>참조).

디지털자료실의 설치는 교육정보화를 위한 환경개선의 차원에서, 그리고 교수-학습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의 경우 디지털자료실 설치 학교는 14개로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으나 2005년도까지 학교당 4,200만원을 투자하여 49개교에 디지털자료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¹⁵⁾

도서관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로서 현 단계에서 디지털자료실 설치가 갖는 의의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디지털자료실 설치는 지금처럼 일반 교과교사가 도서관을 담당하는 체제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독서교육’ 중심에서 ‘다양한 교육·학습활동과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는 교육학습정보센터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인력의 계획적인 활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단순한 인터넷이용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기도 좋은 학교 도서관만들기 사업평가¹⁶⁾에 따르면 활성화된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평가하는 가장 큰 효

1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실)활성화 종합계획(2003-2007), 2002, p.8.

16) 황금숙, “경기도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평가 및 추진과제,” 2000년 경기도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평가 토론회 자료집(서울 : 경기도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 2000), pp.7-30.

과는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정된 예산으로 책을 구입하는 대신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어떤 효용가치를 가질지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

V. 결론과 제언

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정보의 생성·소멸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살아가기 위한 힘이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이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회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장으로 학교라는 제도를 설립하였다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내의 하위제도로 도서관이 설립되고 적절히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현장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중등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운영실태와 도서관 기능에 대한 이해, 학교장, 교사, 학생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이용정도,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서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단계적이더라도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서교사의 배치라는 것은 이론적인 당위성일 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서도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는 문헌정보학 전공이기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대두되었으나 다양한 조사대상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이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 평생교육사회, 교육개혁, 자료중심학습, 탐구수업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육의 인프라로 활용하여 교육목표와 방법을 수정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무수히 강조되어 왔다. 독서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또는 독서교육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정보활용교육이 학교도서관의 기능으로 통합 인식되어야 한다. 도서관 담당교사 뿐 아니라 일반교사들에게도 각종 직무 및 자격연수를 통해서 도서관 운영이나 자료이용에 필요한 단편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이해하고 교육학습정보센터로 인식시키기 위한 이론 및 방법적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교내에 독립된 도서관 지원부서가 필요하다. 도서관이 학교에 따른 부서에

분산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도서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도서관 기능에 대한 비중이 학교마다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소속의 불일치는 담당교사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문제는 소속 부서의 일치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독립부서의 설치라는 차원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교과교사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협력체제로는 각 교과를 대표하는 교사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독립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⁷⁾

넷째, 일반교사의 도서관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시켜야 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시수감면이나 담임면제와 같은 실질적인 배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활용수업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 방법으로는 일과수업 중에 학급별 이용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섯째, 디지털자료실 설치의 의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료실 설치는 지금처럼 일반교과교사가 도서관을 담당하는 체제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독서교육’ 중심에서 ‘다양한 교육·학습활동과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는 교육정보센터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에 의한 계획적인 활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단순한 인터넷이용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한정된 예산으로 책을 구입하는 대신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도서관이 어떤 효용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더욱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

일곱째, 활성화계획이 내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통계는 직원, 예산, 시설, 자료, 장비, 자료관리프로그램, 이용현황, 도서관 이용수업시간, 1일 운영시간의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통계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애매하기 그지없다. 숫자로 표시되는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숫자로 표시되는 통계조사가 아니라 정성적인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성적 조사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수준별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수준별로 실천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하위그룹의 도서관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상적으로 운영되는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달성목표를 명확하게 함으로 상위그룹의 도서관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활동의 범위를 보여주는 방법으로도 효과적이다.

여덟째, 학교도서관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는 학교장이며, 학교장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도서관 행정시책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이 진정한 의미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강력한 정책, 학교장의 의지, 사

17) 대구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급별로 독서부장제를 신설 운영하도록 권고하는데, 모든 교과와의 협력을 통해 성취해야 할 도서관활성화의 방향을 독서라는 용어로 제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서교사 채용, 그리고 교내 도서관 지원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5년간의 전시행정이 아니라 교육개혁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사서교사배치와 함께 학교도서관 실태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토대로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주도할 전담인력을 교육청 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연구는 학교도서관 관련 논문, 교육청 간담회·특강·관련자와의 개인적 대화, 학교도서관 담당교사·교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필자가 체득한 다양한 견해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표본수가 적고, 또한 운영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서관을 선택하였으므로 조사결과와 분석내용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그리고 본 조사의 문항은 거의 명목척도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각 문항에 사용한 명목척도가 응답을 위해 가장 적절한 것인지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유의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각 명목척도를 비율척도로 변환하여 응답의 내역에 어느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지역, 그리고 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부록〉

설문조사

A. 학교도서관 담당 선생님에 관한 질문

1. 근무하시는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공립/사립 : 중학교/고등학교
2. 담당교과목은 무엇입니까?
3. 학교도서관을 담당한 총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1. 1년 미만
 2. 1년 이상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년
4. 도서관을 맡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본인이 원해서
 2. 학교의 지시에 따라서
 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_____)
 2. 없다
6. 도서관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어느 정도 보람을 느끼십니까?
 1. 아주 크게 느낀다
 2. 약간 보람을 느낀다
 3.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4.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다.

B. 귀 학교도서관의 현재상태에 입각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7. 귀 학교의 도서관은 교무분장상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1. 연구부
 2. 교무부
 3. 정보부
 4. 교재부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8.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시간은 하루에 어느 정도입니까?
 1. 1시간 미만
 2. 1-3시간
 3. 3시간 이상
 4. 일정치 않다.
9. 최근(2-3년)의 도서관 평균예산은 어느 정도였으며, 그 중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는 각각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산: _____
도서구입비(_____): 운영비(_____)
10. 귀 도서관의 운영정도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해당사항에 전부 표시해주십시오.
 1. 대출하지 않는다.
 2. 대출하고 있다.

3. 전산화되어 있다 4. 도서관 이용지도를 실시한다.
5. 도서관활용수업을 실시한다.
11. 현재의 운영수준에서 도서관 이용정도는 어떻습니까?
1. 아주 잘 이용되고 있다 2. 그런대로 잘 이용되고 있다
3. 잘 이용되지 않는다 4. 거의 이용이 없다
12. 도서관운영의 어려움을 다음 다섯 항목에서 순위로 정한다면?
1. 교내외에 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이 없음() 2. 학교장의 무관심()
3. 일반교사의 무관심() 4. 문헌정보학 지식의 부족()
5. 업무부담의 과다()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3. 학교도서관의 기능으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다양한 교육 · 학습활동, 정보활용능력 신장 2.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
3. 독서를 통한 정서순화 및 사고력 신장 4. 견전한 여가생활
5. 지역사회 정보문화 사랑방
14.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것입니까?
1. 시설(공간)개선 2. 장서확충 3. 전담인력 배치
4. 디지털자료실 설치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5. 학교장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정도는 어떻습니까?
1.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2. 잘 이해하는 편이다
3. 잘 모르고 있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16. 교사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정도는 어떻습니까?
1.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2. 잘 이해하는 편이다
3. 잘 모르고 있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17. 교사들의 도서관 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아주 많다. 2. 좀 이용하는 편이다.
3. 별로 이용이 없다. 4.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18. 7차 교육과정 실시 이후 교사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용에 변화가 있습니까?
1. 관심과 이용이 크게 증가 2. 약간 증가 3. 전과 동일
4. 약간 감소 5. 크게 감소
19. 교사들의 도서관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1. 도서관에 대한 이해부족 2. 필요한 자료의 부족
3. 도서관 이용시간의 문제 4. 업무로 인한 이용시간 부족
5. 다른 정보원을 이용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0. 현재 학교도서관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1. 학교장
 2. 교사
 3. 학생
 4. 학부모
 5. 교육청
21. 도서관에 대한 학교장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1.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
 2. 학부모의 활동
 3. 교육청 도서관행정시책(우수 학교도서관 선정, 학교평가항목에 반영 등)
 4. 우수도서관 견학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2. 교사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1.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
 2. 디지털자료실 설치
 3. 교내 업무 분장에 도서부(가칭) 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
 4. 도서관활용수업 연구교사제 실시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3.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1. 교사의 독서권장
 2. 자료이용 과제
 3. 도서관 활용수업
 4. 도서관 이용시간 확대
 5. 도서관 이용지도
 6. 다양한 도서관 행사(축제 등)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4. 학생의 도서관 이용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수업전 아침시간 활용
 2. 일과 수업시간 중 학급별 이용시간 할애
 3. 점심시간을 연장
 4. 방과 후 시간 활용
25. 7차 교육과정 실시 이후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와 이용에 변화가 있습니까?
1. 요구와 이용이 크게 증가
 2. 약간 증가
 3. 전과 동일
 4. 약간 감소
 5. 크게 감소
26. 도서관이 교수-학습센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 디지털자료실 설치
 2. 장서확충
 3. 도서관 시설개선
 4. 전담인력 배치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7. 사서교사와 같은 전담인력이 도서관에서 해야 할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표해주십시오.
1. 독서지도
 2. 도서관 이용지도
 3. 도서관활용수업 지원
 4. 일반교사와의 협동교수 프로그램 개발
 5. 학습매체 제작
 6. 교과별 참고자료개발 및 목록제공
 7. 교육과정개발 실천 및 평가
28. 도서관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어느 것이 가장 매력적입니까?
1. 시수감면
 2. 담임면제
 3. 수당지급
 4. 가산점 부여
 5. 우수도서관 견학

29.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였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0. 디지털자료실의 설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1. 도서관 환경개선에 필요하다 2.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킨다
3.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다 4. 도서관활용수업을 강화시킨다.

(**디지털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34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31.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경우, 비용 대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스럽습니까?

1. 대단히 만족 2. 약간 만족 3. 약간 실망 4. 대단히 실망

32.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경우, 도서관이용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크게 기여 2. 약간 기여 3. 별로 기여 않음 4. 전혀 기여하지 않음

33. 가장 이용이 활발한 디지털 정보자원은 무엇입니까?

1. DVD 자료 2. 인터넷정보 3. 교양비디오 4. 어학자료
5. EBS녹화자료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4. 학생봉사조직(도서반)이 있습니까? (**없으면 38번으로**)

1. 있다 2. 없다

35. 있다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봉사반이 없으면 운영 불가능 2. 약간 도움됨
3.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 4. 전혀 도움되지 않음

36. 학생봉사반이 하는 일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자료조직(전산입력) 2. 대출반납 3. 환경미화 4. 도서관 행사주관
5. 도서관홍보지 제작 6. 교내방송홍보 7. 도서정리 8. 구입자료선정
9. 도서관홈페이지 관리 10.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7. 봉사반 운영은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1. 운영비 부족 2. 인센티브 부족 3. 희망자 부족
4.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8. 학생봉사반 외에 도서관 운영을 돋는 인적조직이 있습니까?

있다면,

1. 학부모 도우미 2. 사서
3. 대학생 보조원 4.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9.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학교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